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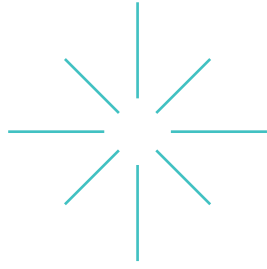
# 뷰티풀펠로우 9기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차

03

여는 글



04

아름다운가게 & 사회적기업센터 소개

05

뷰티풀펠로우 사업 소개

08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0

김성민 펠로우 '브라더스키퍼'

22

안성규 펠로우 '드림스폰'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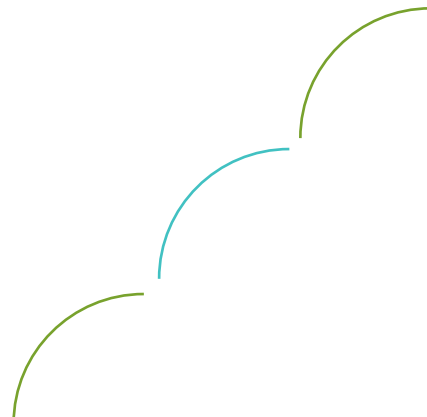
이소아 펠로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46

현승헌 펠로우 '선립건축사사무소'

57

뷰티풀펠로우 1~12기 소개



여는 글

안녕하세요.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장윤경입니다.

COVID-19 팬데믹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장기화의 흐름으로 이어지던 2022년, 아름다운가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로 20년간 성장한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뷰티풀펠로우' 사업을 통해 매년 국내 사회혁신리더를 선발하고 지원하며,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기 네 분의 펠로우 역시 굳센 결의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김성민 펠로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규 펠로우는 대학생에게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장학금 플랫폼 운영 및 다양한 기획을 통해 새로운 장학금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이소아 펠로우는 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며 모든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승헌 펠로우는 고시촌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과 지역 커뮤니티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함으로써 건축이 갖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펠로우에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지난 3년간의 동행이 사회혁신으로 향하는 걸음에 마중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듯이, 펠로우들이 만드는 변화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3년간의 동행이 끝나면 '졸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졸업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지원은 종료되지만, 아름다운가게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일상 속 작지만 유의미한 사회변화를 위해 지금껏 힘차게 달려왔듯, 앞으로도 곳곳하게 나아갈 네 분의 펠로우에게 진심어린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 빛나는 여정에 아름다운가게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가게 소개

### ‘조용한 생활의 혁명’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하게 하여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게 하는 ‘조용한 생활의 혁명’을 긴 안목으로 전망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과 재순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기부금을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단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지역 풀뿌리 시민들의 문화와 공육(共育)의 사랑방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 사회적기업센터 소개

### “일상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2011년 아름다운가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센터는 그 방법을 일상을 바꾸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안의 사람들이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센터는 사회적경제 내에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원하고, 이들이 서로 연대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를 촉진합니다.

### 미션

사회혁신리더의 성장을 지원한다.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류를 촉진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 핵심가치

#### 상호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 일상성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사회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 다양성

다양한 가치 속에 미래의 가능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샐러드볼(Salad bowl)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 뷰티풀펠로우 소개

### 뷰티풀펠로우 BeautifulFellow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

뷰티풀펠로우는 사회혁신리더의 소셜미션 달성과 성장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들이 만드는 변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혁신리더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text{아름다운가게} + \text{동반자} = \text{BeautifulFellow}$$

BeautifulStore      Fellow

## 인재상

함께하는 사람의 힘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

### 사회혁신기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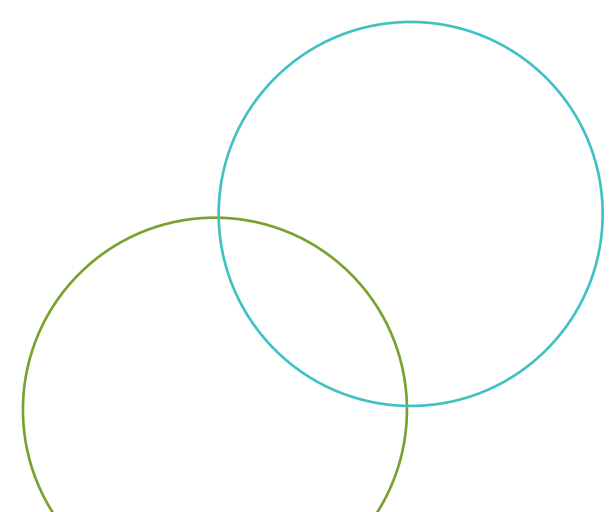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변혁적리더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며 그들에게 비전과 영감을 불러넣는 사람

### 진취적협력자

연대를 내면화하여 일상과 사회, 개인과 조직을 연결 짓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신뢰를 바탕으로, 3년간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매월 활동비 지원

### 국내외 연수

펠로우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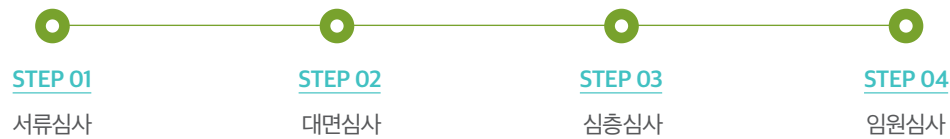
### 멘토링 및 컨설팅

분기별 경영 이슈 점검을 통한 멘토링, 컨설팅

###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아름다운가게 내외부 자원연계 전체 기수 펠로우 간의 네트워크 '뷰티풀펠로우클럽'

## 선발과정



## 뷰티풀펠로우 사업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사업 연차 (2011년~2022년)

12년

총 지원자 수

1,629명

선발된 펠로우 수 (1기~12기)

49명

총 사업 지원금

약 23억 3천 5백만원

## 뷰티풀펠로우 9기



드림스폰 안성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 선렘건축사사무소 현승헌 |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 9기 펠로우 지원 기간

2019년 ~ 2022년 총 3년

## 사업분야 및 키워드

브라더스키퍼 | 김성민

자립준비청년, 자립, 교육, 인식개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이소아

법률, 변호, 인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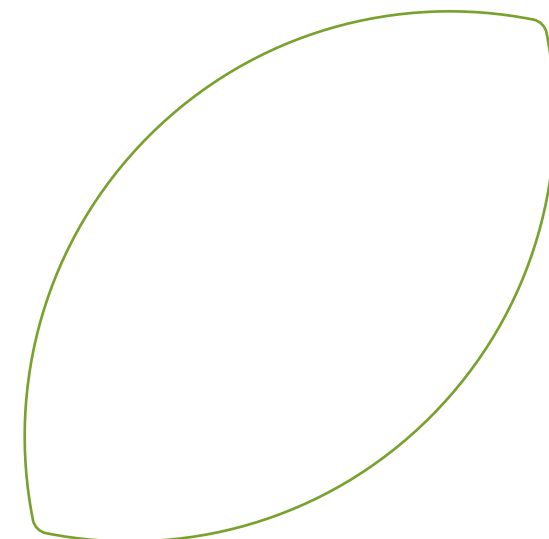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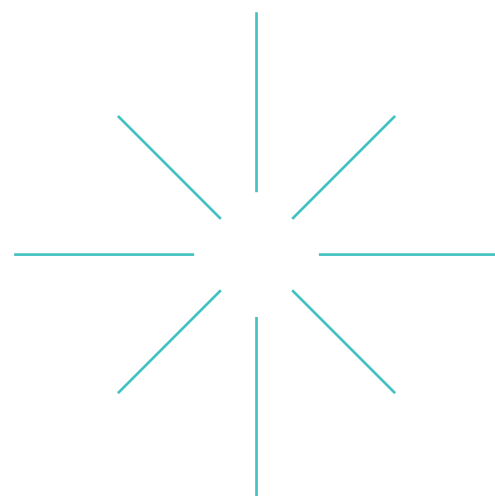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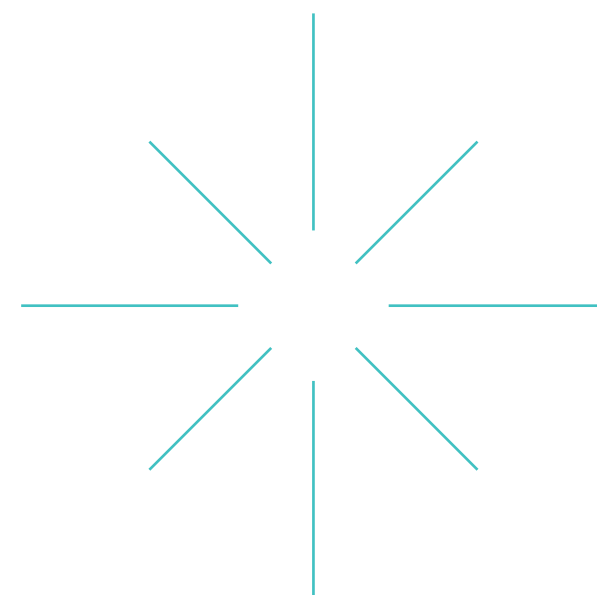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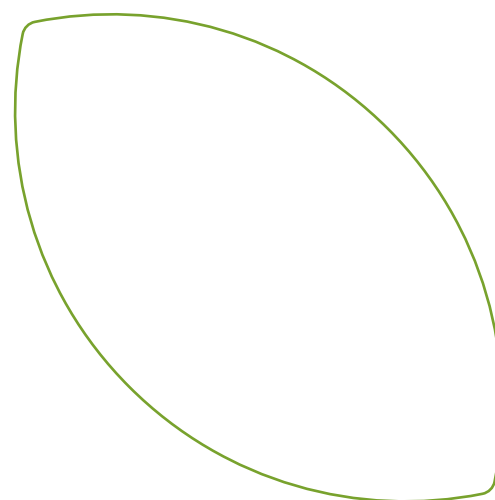
드림스폰 | 안성규

장학금, 플랫폼, 컨설팅, 멘토링, 펀딩

선렘건축사사무소 | 현승헌

건축, 도시재생, 사회주택, 커뮤니티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_ 김성민 펠로우



## 김성민 펠로우 브라더스키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식물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회복을 돕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또는 위탁가정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주거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탓에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보육원 출신으로 '나처럼 가족이 없는 친구들에게 형제이자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7년간 NGO에서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후원만으로는 자립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정서적 회복과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직접 보육원 퇴소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념으로 2018년 5월, 브라더스키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금융, 주거, 법률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식물을 다루며 정서적 안정을 얻은 자립준비청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스키퍼라는 조경 서비스 제공 브랜드를 통해 실내외 벽면녹화, 식물 인테리어, 화분 임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other's keeper** BREATH (B) KEEPER  
save people and save nature

#### 기업개요

**기관명** 브라더스키퍼

#### 소설미션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One Job)하고 정서적인 자립을 지원(One Care)하며 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One Dream) 돕는다.

**설립연도** 2018년

#### 홈페이지

브라더스키퍼 [brotherskeeper.co.kr](http://brotherskeeper.co.kr)  
브레스키퍼 [www.breathkeeper.org](http://www.breathkeeper.org)

#### 기여하는 SDGs



**Goal.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8.6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 사회문제

### 핵심이해관계자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년

해마다 약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자립을 준비할 시간과 함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통합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 1.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 부족

- 보호 종료 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지원되나,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액수로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계 전선에 뛰어들
- 그러나 진로 탐색 시간 및 업무에 필요한 역량 부족, 정서적 상처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음
- 수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 호소\*\*\*

### 2. 안정적 자립에 필요한 생활 역량 지원 및 정서적 지지 부족

- 만 18세에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비자발적 1인 가구로 자립을 시작하는 상당수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느낌
- 사회경험이 부족한 자립초년생은 생활기술부터 금융, 법률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이종고를 겪고 있음

### 3. 낮은 사회적 인식 및 통합적 지원 정책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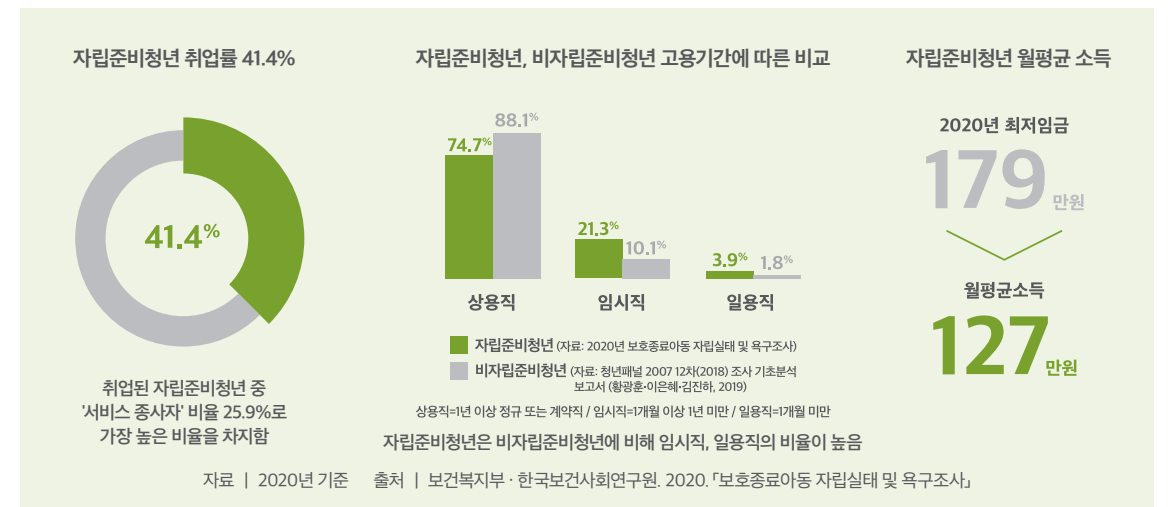
- 사람들의 낮은 인식으로 보호 종료 이후에도 부정적인 경험 반복
- 자립준비청년은 2019년 이전까지 취업 취약계층 분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사각지대에 위치
- 연락두절로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을 이탈하는 자립준비청년 꾸준히 발생\*\*\*\*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보건복지백서」, p.387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519명(33.4%)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p.156-p.15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p.19-p.20.



## 솔루션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벽면 녹화 등 조경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넘어, 자립준비청년이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 서비스업을 넘어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컨설팅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 고용과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3년간의 변화

####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제공 2명 → 6명

자립준비청년 채용 우대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고용 확대

- 직원 중 자립준비청년 고용 비율 70% 이상 달성, 2019년 33% (직원 6명 중 자립준비청년 2명) → 2022년 75% (8명 중 6명)
- 2018년 5월 브라더스키퍼 설립 후 자립준비청년 평균 근속개월 수 (약 28개월)



#### 연매출 성장 1억 → 8.2억

연매출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채용 환경 마련



#### 전국 보육원 및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벽면녹화 제공 약 140여 곳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공간 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전환 경험



※ 수치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

#### 구성원 간의 유대 및 정서적 안정과 연결된 사업 모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근속 가능한 환경 조성

“삶의 방향을 모르고 헤매던 중에 본 표지판이자 길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같은 과거를 살아온 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저 역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동생들도 같은 꿈을 꾸게 하고 싶어요.”

브라더스키퍼 직원, 000



## 2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

### 3년간의 변화

####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15회 → 154회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정서적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공공기관 등)와 연계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

-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자기표현, 금융·경제, 법률, 주거 등 자립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개별 프로그램 및 자립캠프 운영
- SEEKER(멘토)-SEED(멘티) 1:1 또는 1:2 매칭으로 자립 선배 멘토링 진행
- 벽면녹화 및 공기정화식물 관리 기술 교육 및 브레ски퍼 인턴십 연계를 통한 직무 체험 기회 제공

154회

####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역량적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가치 찾기를 하면서 신중히 고민하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고 꿈이 생긴 것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영명보육원, 이선균(가명, 20세)



##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 옹호 활동

### 3년간의 변화

#### 자립준비청년 이슈와 연결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스피커로 활동

정책 간담회, 국회 입법 공청회, 포럼 및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 자립준비청년을 둘러싼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옹호 활동 진행

####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안 개정에 기여

- 1)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중 취약계층 분류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2019.07.05)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 자립준비청년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연장
  - 보호종료 후 5년까지 → 만 34세까지 (2021.03.10 개정안 고시)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범위 확장 및 통합적 자립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

- 1) 경기도 자립정착금 지원범위 확장
  - 지급의무 없음 → 최대 1천만원까지
- 2)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지원 확장
  - 지원범위: 보호종료 후 3년 → 보호종료 후 5년(2021.08 개정)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김성민 펠로우,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터뷰 ① 김성민 펠로우

**브라더스키퍼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체감하시나요?**

브라더스키퍼를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언론이나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문제를 인지하고, 들여다본다는 것이요.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알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저 열심히 말하고 활동했을 뿐인데 브라더스키퍼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브라더스키퍼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좋은 기회들이 주어졌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뷰티풀펠로우로서 3년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매년 동일한 문제들이 동일한 과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세기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진달까요.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과정들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험들을 했기에 그 다음을 고민할 수 있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때마다 협력해주신 것들을 통해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험들이 저에게 주요했고, 참 좋았습니다. 뷰티풀펠로우 지원 마지막 해인 2022년은 성장하는 한 해였고요. 브레스키퍼 안에서도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자립준비청년과 선생님들을 위한 캠프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라더스키퍼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기뻐요. 저희의 진정성이 조금씩 구체적이고 실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민 펠로우에게 '뷰티풀펠로우'는 어떤 의미였나요?**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의 삶은 역경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경력'이 되거든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면 모든 시간은 곧 경력이 됩니다. 저의 역경이 경력이 된 것처럼 수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브라더스키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브라더스키퍼가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존재였을 때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로 선정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어요. 유명이 될 수 있기까지 누군가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이자 의미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브라더스키퍼는 아름다운가게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아름다운가게에서 보육원퇴소청소년 지원을 받았던 친구가 브라더스키퍼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은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또 아름다운가게가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후원 캠페인에 저와 브라더스키퍼 직원들이 캠페이너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브라더스키퍼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이야기 해왔던 목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자립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브라더스키퍼가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인턴십-정직원 연결 채용 등의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의무 고용 제도 등을 활용하여 곳곳에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브라더스키퍼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카페를 오픈할 예정이고 2023년 4월까지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운영의 틀이 잘 잡힌다면 2023년 안에 10개의 지점을 오픈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히즈빈스(뷰티풀펠로우 8기 임택 대표님이 창업한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의 커피 브랜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과 협업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인터뷰 ② 자립준비청년 I 익명

김성민 펠로우와는 언제 처음 만났고, 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무살이 된 2022년 2월에 보호 시설에서 퇴소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있던 시설에 김성민 대표님이 교육 오신 걸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생각하는 마음과 도와주려는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김성민 대표님 같은 분은 처음 만나서 궁금한 마음에 메일로 연락을 드리면서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김성민 대표님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이예요. 또 대표님이 자라오신 환경과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 그리고 브라더스키퍼에 대해서도 종종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지, 식물 사업이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처럼 브라더스키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들려주세요. 대표님을 알고 나서 저도 대표님처럼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저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브라더스키퍼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브라더스키퍼는 매년 명절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주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시설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과 같이 놓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고충이나 어려움을 스펀 없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레크리에이션이나 보드게임, 볼링도 함께 하고 밥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브라더스키퍼의 활동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은 자립준비청년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 앞으로 사회적 제도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아파요. 정책적으로 바뀐 것 중에 보호종료기간이 연장되거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 인상되는 건 피부로 와닿는 변화인 것 같아요. 심리지원도 해준다고 들었고요. 다만 주거 부분도 해결되면 좋겠어요. 보호종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시설의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불안정하거든요. 퇴소하고 공동생활숙소(생활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린 나이에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다보니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하고 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홈커밍데이처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김성민 펠로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대표님은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세요. 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늘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인터뷰 ③ 브라더스키퍼 I 김호성 팀장



**브라더스키퍼의 시작 단계부터 함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함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5월에 브라더스키퍼가 설립되고 저는 6월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마침 다니던 회사도 퇴사했고 브라더스키퍼 설립 당시 협업하던 분이 지금 제 아내의 형님이어서 연이 닿아 성민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브라더스키퍼’라는 이름을 듣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군요(웃음). 가도 되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 없었고, 대표님도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니 끌리는 게 있었어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일하는 기업은 있지만 대표까지 같은 공감대를 가졌다는 점이 달랐죠. 이전 직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했는데, 브라더스키퍼라면 돈보다는 가치에 더 중심을 두고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물론 스타트업이다보니 초반엔 개척하고 돌파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루고 싶은 가치를 보고 온 게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라더스키퍼와 같이 성장하면서 제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계신 업무와 브라더스키퍼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브레스키퍼 파트에서 벽면녹화 설치, 식물파트 관리 시공 업무를 했는데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려 부서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브라더스키퍼의 교육파트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준비 교육, 캠프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캠프는 브라더스키퍼 설립 전부터 성민 대표님이 자발적으로 해오던 건데 최근에는 외부 수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은 편하게 나누고, 자기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자리예요. 보육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브라더스키퍼의 교육이나 캠프 등을 통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아이들이 좋은 것들을 흡수한다고 생각해요. 자립준비청년은 성장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보니 그 시간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힘들고 부정적인 시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브라더스키퍼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원동력은 성민 대표님과 비슷합니다. 목적과 목표, 꿈이 있으니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같은 방향과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 아닐까요.

브라더스키퍼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거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만든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크게 와닿는 변화는 정책과 제도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청년기본법 상 나이) 이하'까지 연장되기도 했어요. 기존의 5년은 너무 짧았어요. 병역이나 학업 등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보호종료 되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매년 2,500명 가량 되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고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지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물론 그것만으로 자립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요. 괴롭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브라더스키퍼와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향해 가면서 업무 역량이 늘고 주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 역시 성장했다고 느끼거든요. 무엇보다 제게 브라더스키퍼는 회사라기보다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해요. 직장 동료면서 친구고, 가족이 된 거죠.

#### 김성민 펠로우는 어떤 리더인가요?

목적이 분명한 리더예요. 진심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세요. 저도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나니 어쩌면 제 꿈은 선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비어나(김성민 대표 별칭, 브라더스키퍼는 서로를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자립준비청년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꿈이 너무나 분명해요.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많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흐릿했다면, 혹은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_ 안성규 펠로우

## 안성규 펠로우 드림스폰



장학금 플랫폼 드림스폰을 운영하며 학생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장학금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할 당시 장학생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장학금을 보며, '이런 혜택을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장학금 정책과 정보 접근성의 취약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며, 이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계기가 되어 2013년,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인1 장학'을 꿈꾸며 새로운 장학금을 기획하고 장학금 정보를 모아 페이스북을 매개로 한 드림스폰 서비스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폰은 '드림스폰서', 즉 꿈을 응원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장학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3,000여 개의 장학 정보를 수집 및 분류하여 대학생에게 맞춤 장학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다양한 개인, 민관과 협력하여 '드림장학'이라는 새로운 장학금을 만들어 성적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장학금과 달리 선정 기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은 장학 혜택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 힘겨운 순간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믿습니다.



### 기업개요

기관명 드림스폰

### 소셜미션

장학금 접근성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 및 공평한 삶의 기회 보장

설립연도 2013년

### 홈페이지

www.dreamspon.com

### 기여하는 SDGs



### Goal.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사회문제

### 핵심이해관계자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청소년 청년, 일반인 장학금 기부자 장학금 운영기관

### 1. 산재되어 있는 장학금 정보 및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장학 기회 축소

- 2017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수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으로 파악\*
- 한국장학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
- 지인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많은 학생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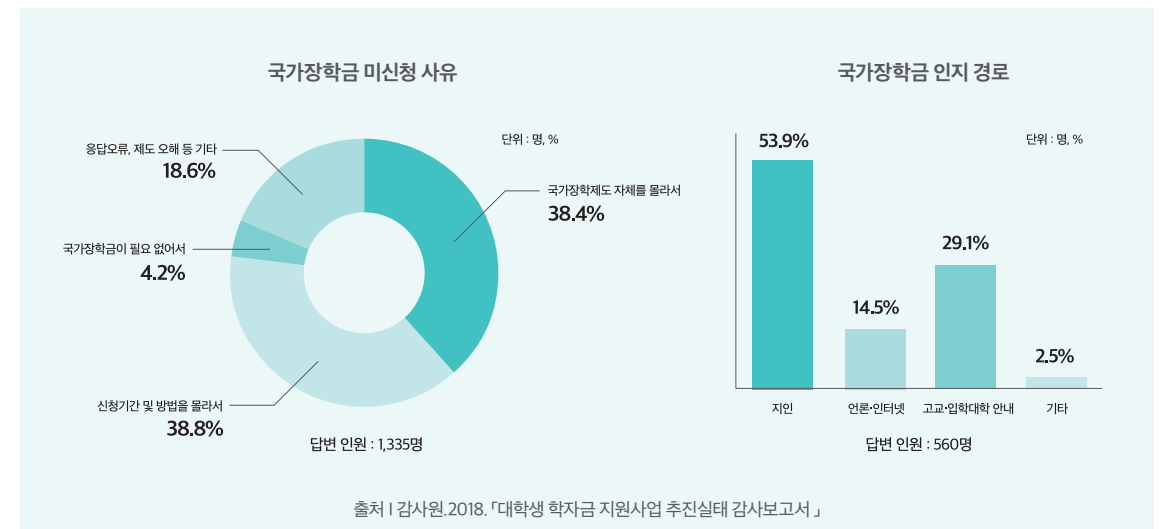
### 2. 기존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대부분의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 또는 적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
- 대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식 장학기구 중 하나인 한국장학재단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내 장학제도 대부분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소득분위가 학생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므로 사각지대 존재

\*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9만 3,802명, 그 중 52%인 4만 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출처: 감사원, 2018,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p.24.)

\*\* 미신청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1,031명(77.2%)이 '국가장학금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기간 및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 (출처: 감사원, 2018,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p.24-p.25.)

\*\*\* 지인 53.9%, 언론-인터넷 14.5%, 고교내내-입학대학 안내 29.1%, 기타 2.5% (출처: 감사원, 2018,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p.25.)



## 솔루션

청년들의 장학금 정보 비대칭 문제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지역, 기업 장학금 등 전국 3,000여 개의 장학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소액 장학금 및 다양한 주제의 장학금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재미와 의미를 담은 새로운 장학 형태를 만들고 기부 참여를 확대합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간결한 장학금 정보를 전달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기부자와 참여자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기획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장학금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 1 국내 최대 장학금 정보 제공 플랫폼 '드림스폰' 운영

### 3년간의 변화

#### 드림스폰 회원 수 약 350% 증가 (4만명 → 14만명)

전국 3,000여 개, 약 7조원 규모의 장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1:1 장학금 상담 약 250% 증가 (600명 → 1,500명)

이용자의 조건에 맞춘 장학금 정보 및 무료상담 제공



※ 수치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

#### 간편한 장학정보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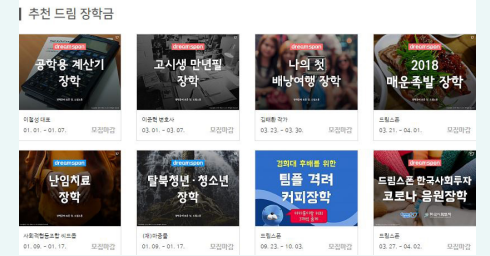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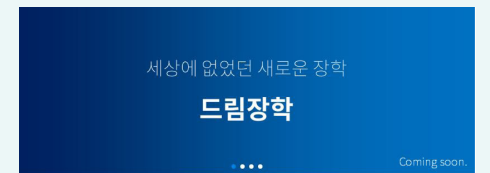
기부자가 장학정보 홍보부터 장학생 접수 및 심사 평가 관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접수 시스템 마련

#### 기부자와 장학금 정보 이용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장학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교육 기회 확대

“저는 드림스폰 측에서 매달 장학금을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통해서 있는지 몰랐던 장학금을 알게 되어서 최근에 예술 관련 장학금을 새로 신청했습니다.

어떤 장학금이 올라와있는지 정리해서 공유해주는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드림스폰을 통해 어떤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빠르게 잘 정리된 영상을 받고 더 많은 장학금에 지원해서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폰 안함사 장학금 장학생 인터뷰 중



## 2 기존 장학금 선정 기준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드림장학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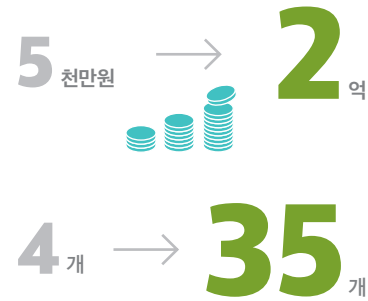
### 3년간의 변화

#### 드림장학금 개발

(규모 5천만원 → 2억원, 개수 4개 → 35개)

성적과 소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꿈과 재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드림장학금 개척

- 만 19세~34세 미취업, 미창업 청년을 응원하는 소액 장학금
-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장학금
-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장학금
- 취업, 창업 준비 및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장학금
- 현물 기부에 관심있는 소상공인과 연계한 학생 대상 식사 제공 장학금
- 대학생 멘토가 고등학생들과 본인의 대학 캠퍼스를 탐방하며 진로, 입시 경험 등을 공유해주는 멘토링 장학금



####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학금 공동 기획

- 안함사 장학금(‘민생경제연구소 안전걸 소장과 함께하는 사람들’ 장학금):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장학금 지원 시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받아 실제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 제고
- 드림스폰 스칼라십 크리에이터: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학금을 직접 기획하는 기회 제공 및 드림스폰 커뮤니티 선배 멘토링 지원

#### 드림장학 복지물 운영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국내외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제공하고 구매 시 장학금을 적립하여 자생적인 장학금 조성 및 기부 문화의 일상화 시도

#### 기존 장학금 사각지대까지 수혜 범위를 확장해 장학금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장학금 제공

“드림스폰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소액으로라도 많은 장학금을 기획해주는 거였어요. 벽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담장이 낮았고요. 사실 장학금을 알아볼 때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신한테 맞지 않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학금 조건이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청년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게 드림스폰의 굉장히 큰 순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드림스폰 안함사 장학생 인터뷰 중

#### 기부 문턱을 낮춰 누구나 소액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학금 기부 문화 조성

- 기업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 시민도 장학금 생태계 조성에 동참
- 장학금 기부 문화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해 선순환 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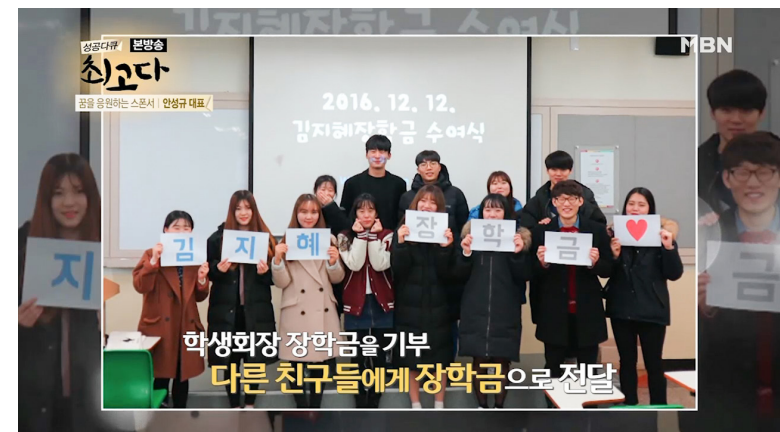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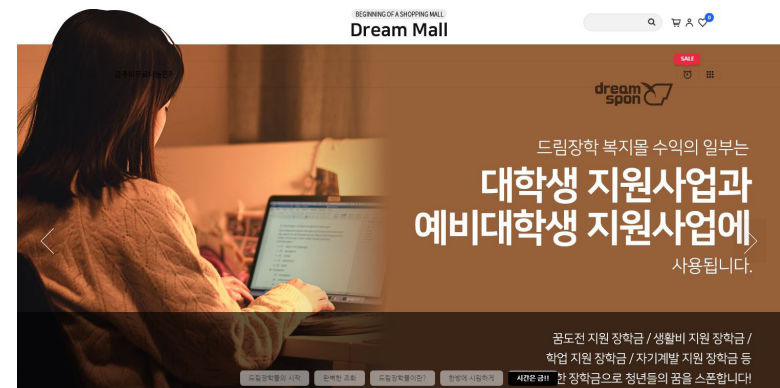
“약소하지만 1년간 조금씩 아낀 커피값으로 학교 후배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경희대생 학생 기부자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배고픈 학생들이 가게에 와서 배불리 식사하고 시험기간 힘내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장학금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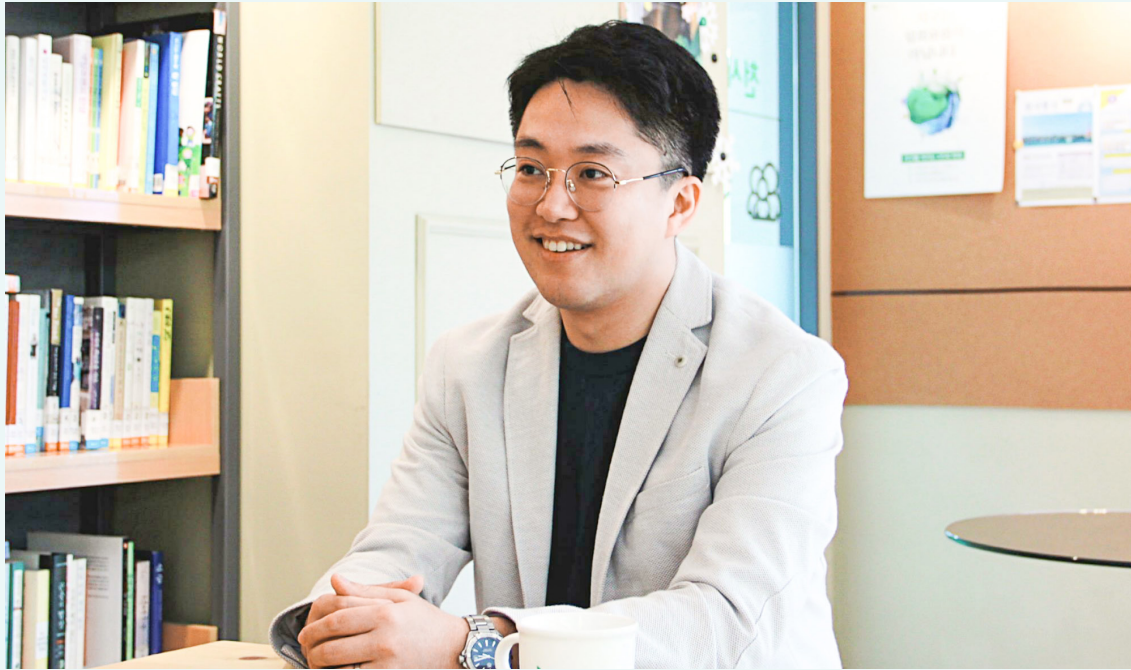
기부 문화 조성



출처  
위 | 드림스폰 홈페이지  
아래 | MBN '성공다큐 최고다' 413회(2019. 11. 16. 방송)

# 안성규 펠로우,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터뷰 ① 안성규 펠로우



### 뷰티풀펠로우로 함께한 3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주요한 성과로 보는건 어떤 걸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장학금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장학금 문화를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모임, 단체모임의 기부자와 함께 다양한 규모의 장학금을 기획했어요. 금전적 지원 외에 확대된 의미의 장학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장학금, 꿈수저 장학금, 기후위기 장학금, 공익활동 장학금을 지원하는 ‘안함사 장학금’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들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부가 이어지는 이유는 기부자가 원하는 장학금을 얘기하면 저희가 홍보, 접수, 심사평가, 오프라인 행사까지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기 때문이에요. 장학금 기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청년들을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진행할 때 드림스폰이 캠페인 기획제작자로서 또 하나의 매개체이자 채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크게 확대하진 못했어도 100여 건 가까이, 총 3-4억 정도의 장학금을 기획했어요. 초기에 목표했던만큼 달성하진 못했지만 목표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드림스폰이 만든 변화를 체감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말 많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회사 이메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혹은 강연을 통해 연락이 오는데, 뿌듯함을 많이 느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 기억에 남은 사례는 여행장학금에 선발되어 처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지금은 미술작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되면 본인이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미대생 친구는 소득분위가 1분위여서 돈이 없어 미술 공부를 못할 거라 생각했대요. 하지만 드림스폰을 통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미술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드림스폰 CI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웃음).

### 안성규 펠로우에게 ‘뷰티풀펠로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뷰티풀펠로우로 선정된 건 공익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돈이 되지 않더라도 평생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드림스폰을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끝내 장학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지금 제가 온 힘을 다해 드림스폰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결국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인데요. 애초에 기업가적 속성보다는 사회적 속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뷰티풀펠로우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지지를 받아도 된다는 위로와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 앞으로 드림스폰이 그려갈 모습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복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어요. 장학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조직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배움의 시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최근 ‘드림스폰 ONE PASS’라는 유료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준비부터 네트워킹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멤버십이에요. 더 많은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드림장학 복지몰도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또 장학금과 연계된 컨셉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 규모를 줄였던 교육사업도 꼭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장학사업 먼저 회복시키고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생존과 성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가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② 드림스폰 기부자 I 김지혜(고대안산병원 간호사)



### 드림스폰과 인연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처음 드림스폰을 알게 됐을 땐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장학금을 검색하다가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모아 놓은 드림스폰 사이트를 보게 된거죠.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기도 하고 반대로 제가 다른 곳에서 발견한 장학금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림스폰은 장학금 정보만 제공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도 진행했거든요. 아쉽게도 저희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멘토링은 못 받았지만 대학생에게 여러 장학 혜택을 제공해주셔서 고마웠어요.

### 기부자의 이름을 딴 '김지혜 장학금'은 대학생이 대학생에게 주는 최초의 장학금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학과에서 학생회를 하고 있었고 학회장 임기가 끝나가던 4학년이었어요. 교수님 추천으로 학과에서 '경기도 간호사회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는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면 되지만 학생회를 함께 했던 친구나 후배들 중에는 사정이 어려운 친구도 있었거든요. 저 혼자 고생해서 받은 장학금이 아니니까 학생회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는데, 드림스폰이 장학금 기획부터 장학증서까지 수여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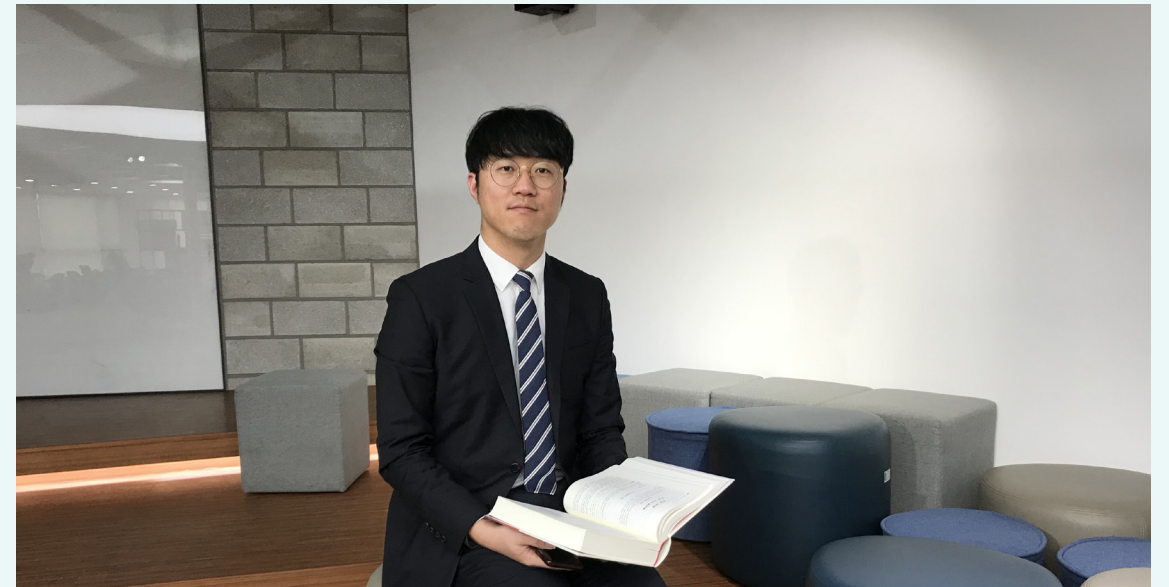
### 학생일 때 한번, 그리고 간호사가 된 지금 한번 더 기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또 기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에 있는 안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대의료원에서 2022년부터 기부와 봉사 등 선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교직원을 독려하려고 '인성인재상'을 제정했거든요. 지난 4월에 5명이 선정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대학생 때 봉사시간이 1천시간이 넘는데, 아름다운가게 남양주점에서 활동천사로 봉사한 200시간도 포함됩니다(웃음). 그 이후로도 노스페이스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등산 1회 인증시 1만원 기부되는 프로젝트에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고요. 받은 상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마침 드림스폰에서 영상 콘텐츠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좋은 의미로 받은 상금만큼 좋은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예전처럼 장학금을 기부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거죠. 이번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예전 '김지혜장학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장학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지혜님이 생각하는 드림스폰은 어떤 존재인가요? 또 안성규 대표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따뜻한 햇살같은 존재요!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주기 위해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면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니까요. 또 다양한 장학금과 함께 재미난 에피소드까지 만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드림스폰을 통해 나눔의 기쁨도 경험했잖아요. 장학금을 받는 건 성취라면, 반대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눔에서 오는 뿌듯함이나 행복이 없잖아요. 2016년에 기획한 '김지혜장학금'도 특별한 기억이 되었는데, 드림스폰과 두 번째 장학금을 기획한 2022년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안성규 대표님은 거의 10년 가까이 드림스폰을 운영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곳곳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③ 드림스폰 장학생 I 채홍윤(부산대 로스쿨)



### 드림스폰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떤 장학금을 받으셨나요?

드림스폰을 처음 알게 된 건 학부 4학년이었던 2019년이었어요. 사정상 장학금이 꼭 필요해서 정보를 찾다가 드림스폰을 발견해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드림스폰을 통해 총 3개의 장학금을 받았고 금액은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장학금 선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원서만 수십 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던 터라 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다른 장학금은 생활비와 주거비 등으로 썼어요. 그리고 로스쿨 입학 준비하면서 요긴하게 사용했구요.

### 채홍윤님이 생각하는 드림스폰은 어떤 존재인지 또 안성규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드림스폰은 친구같은 존재였어요. 가장 많이 접속했던 홈페이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 기업, 재단, 정부 등 장학금을 주는 곳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장학금을 주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일일이 각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드림스폰 덕분에 장학금 목록을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수고가 줄어들어 좋았어요. 저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장학금 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학기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좌우되거든요. 드림스폰 덕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성규 대표님과 첫 만남은 재밌었어요. 로스쿨 졸업 요건 때문에 공익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비영리단체 법률지원 프로그램으로 드림스폰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덕분에 삶에 힘이 됐다, 감사했다" 이런 말을 돌려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 다가갔는데 당황하시더군요. 저도 당황했죠(웃음). 물론 나중에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림스폰의 요청으로 영상 인터뷰 촬영을 위해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드림스폰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닐테고요. 하지만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많이 운영하고 장학금 문화가 활발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서 한국도 미국처럼 성공한 이들이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는 큰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안성규 대표님은 저처럼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과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계세요. 진정성이 느껴졌고, 감동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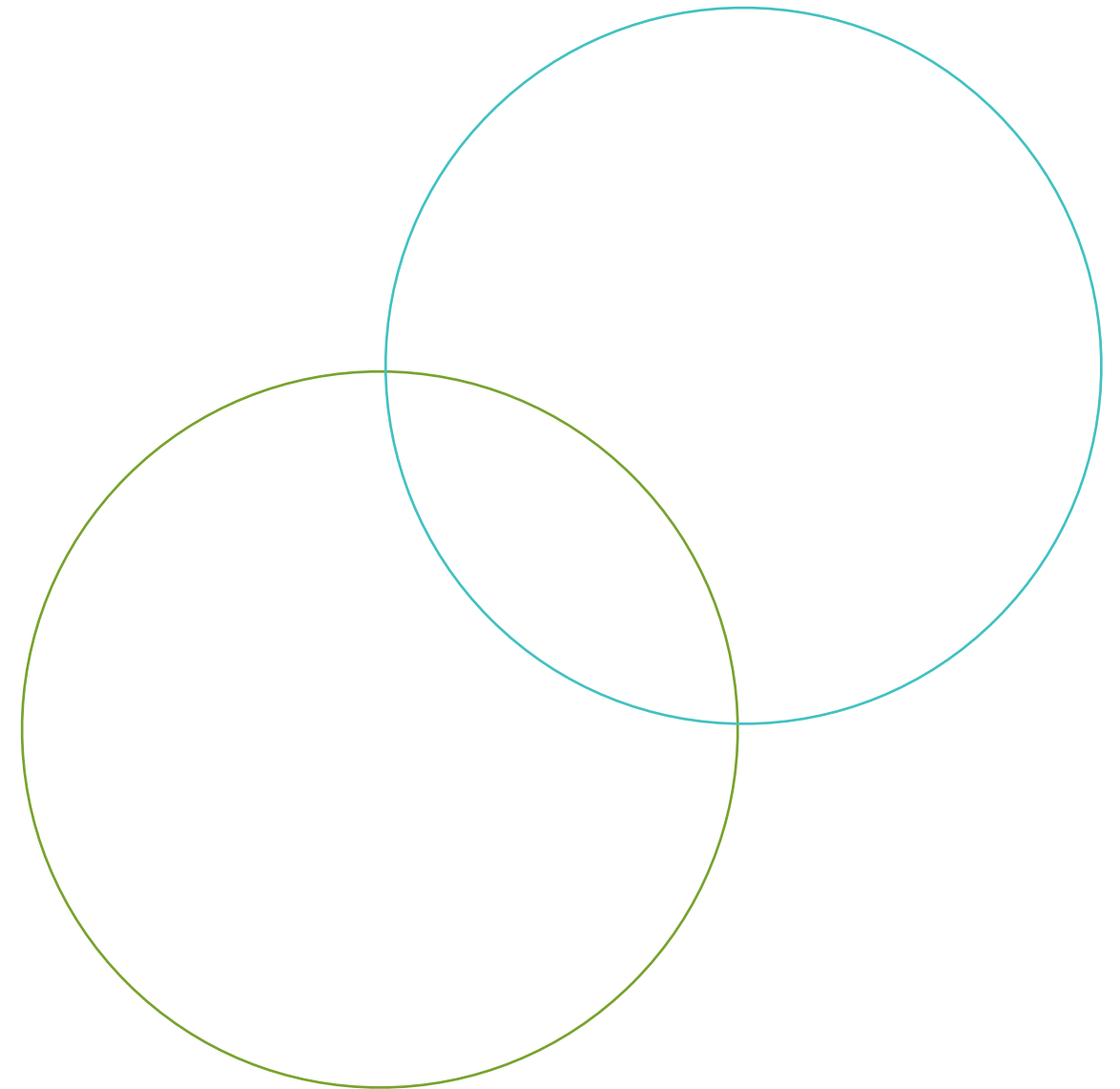
### 채홍윤님에게 '장학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금'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마중물 같은 거죠.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마중물을 한 바구니 정도 부어주면 그 안의 물을 다시 퍼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조차 없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해 성장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사회나 이웃이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줬다는 기억을 갖게 될 거고, 그러다보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학금은 '사회가 저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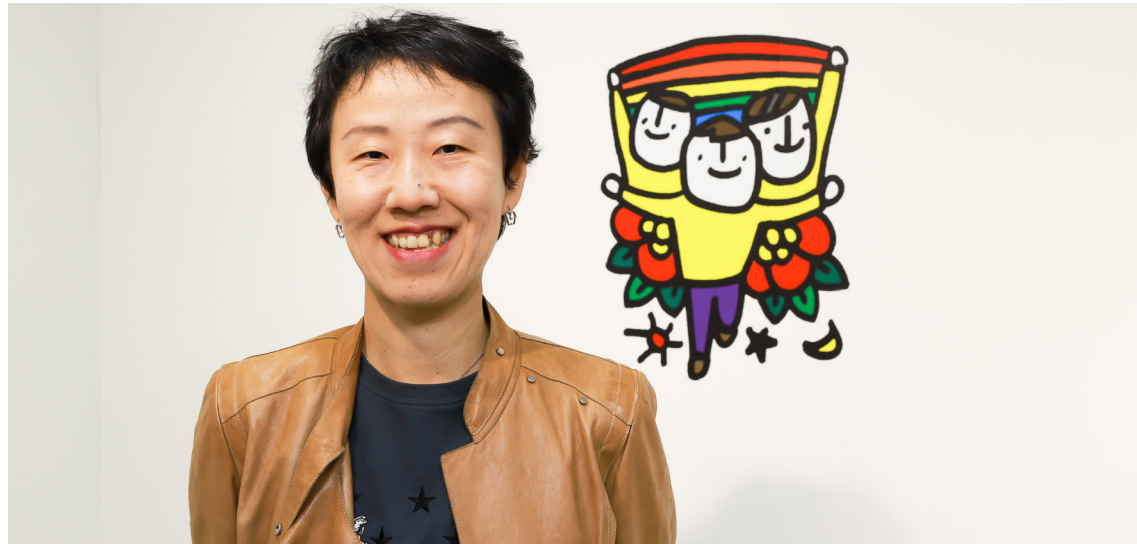
### 만약 장학금 기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장학금을 만들어보고 싶은가요?

'미션 장학금'이요. 보통 장학금은 일회성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감사하면서도 조금 더 동기부여로 연결시킬 수 없을까 고민해본 적 있거든요. 제가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지원서에 적은 자기소개와 목표를 바탕으로 수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실제로 목표를 이룬 학생들에게 성과 장학금, 축하 장학금 등 동기부여를 독려하는 형태의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 일상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_ 이소아 펠로우



## 이소아 펠로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역에서 법률연대활동을 통해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지원하고, 법률옹호활동가로서 인권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섭니다.

서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원팀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한 변호사들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이라는 인권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광주로 돌아와서 살펴보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익전업변호사가 한 명도 없고, 변호사를 채용할만한 비영리단체도 없었습니다. 공익법률단체가 수도권에만 있어서 광주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사안 대응에 늦어지거나 피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법률단체를 직접 만들고자 결심했고, 기획안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끝에 2015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을 위해 공익 소송, 자문 및 법률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인권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는 비영리전업 공익법률단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똑똑한 도구가 되어 법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개요

**기관명**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소설미션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세상에 전달한다.

**설립연도** 2015년

### 홈페이지

<http://www.companion-lfpi.org/>

## 사회문제

### 핵심이해관계자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성매매 피해자 등

### 1. 지역의 공익법률단체의 부재로 인한 지역 인권 사각지대 개선의 어려움

- 공익변호사 활동의 수도권과 지역 간 심각한 편차\* 및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드러낼 공익변호사의 부재로 인한 지역의 인권 침해 심화  
\*\*공익변호사: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위와 같은 지향을 위해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대표적인 공익변호사 단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법적조력체계가 부재할 경우, 유사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재발하거나 피해자의 자립과 관련된 법적 시스템의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소수자와 사회적약자의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움

### 2. 지속가능한 활동이 어려운 공익전업변호사의 현실

- 전국에서 활동중인 공익전업변호사는 2022년 기준 약 150여 명이며, 전체 변호사의 0.5%에 불과
- 설문조사 결과, 단체에 소속된 공익전업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이 가장 1순위 응답이었고 이어서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과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라고 응답\*\*\*
- 공익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 공익변호사 관련 제도적 변화(변호사법 개정 등), 멘토 양성' 등의 외부적 요인과 '공익변호사로서의 역량강화, 지속가능성, 정보공유' 등의 내부적 요인이 시급하게 바뀌길 바란다고 응답\*\*\*\*

\* 서울 85.1%, 경기 8.1%, 전라 2.7%, 경상 1.4%, 충청 1.4% (출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사단법인 두루,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p.39) / 전-현직 공익변호사 74명 대상 설문조사  
\*\* 출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사단법인 두루,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p.16  
\*\*\* 출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사단법인 두루,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p.86  
\*\*\*\* 출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사단법인 두루, 2019.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p.89

### 기여하는 SDGs



### Goal.10

불평등 완화-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 Goal.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솔루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에게 소송, 변론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 피해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제안 및 실태조사, 수사촉구 기자회견, 컨퍼런스 및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연대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익인권법률지원 플랫폼으로서 지역 내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어나가며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인권활동가 활동 아카이빙 및 공익변호사 양성을 통해 지역 인권활동과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 합니다.



## 1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 대상 법률자문, 소송 지원

### 3년간의 변화

#### 지역의 당사자들과의 연결 확대

지역에서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및 협력 소송 지원

- 사건 진행 214% 증가 (28회 → 60회)

28회 → 60회

광주·전남 지역의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아동, 인신매매피해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당사자의 공익소송 진행

- 연결 지역 약 160% 증가 (9곳 → 15곳)

9곳 → 15곳

그 밖에 지역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절차에 닿을 수 있게 돕고, 원치 않게 법적 절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법률 출장, 서면 등을 통해 법률적 지원

※ 수치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

#### 수도권 중심의 공익법률지원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인권 사각지대 개선

지역 내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냄

-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냄
-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미등록아동 체류자격 부여
- 체재 중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비자 교체 불허가 처분 취소
-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등 지방 거점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모범적 활동 사례를 통해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오월공동체상, 광정숙기념사업회 광정숙인권상,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제4회 흥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등

“광주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날, 당시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소아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충분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도 저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그 날, 그 말을 듣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10개월 동안 같이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체류자격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때, 제 질문에 답해줄 사람, 안내해 줄 사람,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고맙고 따뜻하잖아요.”

광주출입국 태국 최초 난민인정을 받은 태국의 인권운동가 A씨

## 2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연대활동 및 제도 개선 활동

### 3년간의 변화

#### 광주-전남 지역 미발굴 인권 이슈 관련 네트워크 확대 및 실태조사 활동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정화

- 지역에 공익법률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를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는 **첫 전남 농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첫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실행
- 2021-2022 전남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자 지원 및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실행 (2014년 언론을 통해 주목받은 염전 인신매매 피해자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2021년 재조명을 받게 됨. 동행은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착취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의 재정착과 관련된 법률을 지원)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및 애드보커시 활동

- **노인빈곤 연구보고서** 제작 및 인권 이슈 토론회, 기자회견 등 애드보커시 활동 진행

#### 시민, 활동가, 당사자 대상 법률 인권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활동

인권활동가 대상 법률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당사자, 시민 대상 인권 이슈 관련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

- SNS 채널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를 각 해당 국가 언어로 전달하는 동영상 및 책자 배포, 통역인 법률용어 교육 영상, 인권 관련 정보 영상(인권 관련 판결문 설명 영상, 인권 이슈 설명 등) 30편 이상을 제작, 공유
- 변론낭독회, 인권그림전시회, 인권 합동 퍼포먼스 등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 기획

#### 인권 이슈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활동,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인권 인식 확산을 통해 지역 내 차별 관행 개선에 기여

- 실태조사를 통해 농어업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이 가능해짐
-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정착
  - 여수노동청, 군산노동청 이주노동자 통역 시스템 개선 및 정착 중
  - 목포 고용노동청 발달장애인전담조사, 전남도청 및 도경찰청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 대응 인식 변화 도출 및 지역 지원 체계 개선 정착 중

“이주노동자 인권지원 사업이 이제 각종 상담의 범위를 뛰어넘어 노동운동과 동행 그리고 시민단체가 결합되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까지 결성되었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고, 전남 농어업이주노동자실태조사까지 진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동행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사업이었으며 광주지역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표 윤영대 (2020. 08. 동행 연간보고서 중)

## 3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활동

### 3년간의 변화

####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및 지역 공익변호사 활동 경험 제공

지역 공익변호사의 활동 양식, 법률 문제 간접 체험 기회 제공  
참여법학전문대학원(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등 15개팀)  
신입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3인)



#### 지속가능한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연구 작업

법률전문가이자 활동가 역할을 겸하는 공익변호사의 특성상 기획, 진행, 조직관리 등 법률업무 외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해 **‘예비 공익변호사를 위한 실무 매뉴얼’** 연구용역 진행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및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제도개선 심포지엄’ 수행

####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 모색 및 지역 공익변호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공익변호사 지역거점 확대 및 지역 공익변호사 가능성 전파

“동행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익변호사로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법률이 있다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그 법률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입니다.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혹은 의뢰인)가 겪는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동행의 걸음을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동행 2021년 하계 실무수습 김보람 변호사의 후기 중

# 이소아 펠로우,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터뷰 ① 이소아 펠로우

### 뷰티풀펠로우로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점을 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지역에서 통거나 숫자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문제에 집중해왔어요.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때 합의 중용으로 끝나게 되면 숫자에 잡히지 않거든요. 판결문이 나오는 결론도 아니고요. 난민 신청을 3번이나 했지만 모두 기각된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공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동권리협약이 있어서 한국에서 학교는 다닐 수 있겠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요. 체류자격을 달라고 해서 겨우 받게 되더라도 이의신청 준비서류 중 하나인 판



결문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권 문제가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언어를 법적으로 유효한 언어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적힐 수 없는 것을 적어내야 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문제는 지역에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지역에 공익전업변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에도 각 분야 인권활동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지난 3년 역시 곁에서 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연대하고, 다양한 지역 인권활동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작은 승리의 기억들과 연대로 앞으로도 계속될 차별과 혐오의 벽을 부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그동안 진행한 소송 중 가장 인상깊었던 소송은 무엇일까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신청거부 소송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인데, 처음엔 병원의 추천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2년 정도 지나고 몸은 더 안 좋아졌고 장애인 관련 상담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됐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서비스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신청자격을 제한하게끔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16년에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거죠. 2020년 6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2년이 지나도록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의 변경 신청을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한 후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기간이 존재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까지 서비스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청 및 시청과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 동행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한 적은 언제인가요?

주변분들이 동행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주실 때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동행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갖는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마주하고 바꿔가려는 것, 광주·전남 이주노동 네트워크 등이 만들어지는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라고 깨닫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사업지원을 받아 동행 홍보영상 인터뷰를 진행했을 땐, 동행이 만들어온 발자취에 대해 이토록 생각해주시는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행이 공익인권법률지원과 관련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공익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변호사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에 상근, 반상근 체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젝트 형식의 협업 등으로 동행의 앞일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원 학생들과도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고요.

농업 이주노동자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동시에 농민들의 상황도 보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여성 농민들이나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들이요. 사회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거든요. 더 나아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역 인권활동의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멋진 활동을 아카이빙 하는 것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동행의 움직임과 세상 곳곳의 목소리들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행을 시작한 지 8년, 뷰티풀펠로우 3년을 마친 지금에야 저는 동행의 미션에 다가가기 시작했음을 알아갑니다. 지역 인권문제에 천착하는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빛나는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단단히 엮여서, 혁신적으로 끈질긴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가닿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끈질긴 시도,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 인터뷰 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이기림 활동가



### 동행과 함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동행과 협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인데요, 광주·전남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다보니 공익소송이나 자문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었거든요. 2021년 9월에 전 직장을 퇴사했는데, 10월에 전남 신안군 염전 노동자 착취 사건이 터졌어요. 신안군의 한 염전업자가 수년 간에 걸쳐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염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제가 자원활동 형식으로 염전을 다니면서 학대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자 지원도 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소속이 없는 채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있었는데, 마침 이소아 변호사님께서 동행 소속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연이 닿았고 스스로 조금 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2021년 말 동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동행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법률지원, 피해자 직접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또 소송대리인단의 간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염전 근로자 실태 조사 연구 용역 사업으로 염전 전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어요. 실제로 염전에 가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도 하고요. 인권교육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에요. 작년에 염전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장애인 사건을 지원하거나 회계, 총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지원은 어떤 개인의 생애사를 돌보는 일이었다면 동행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확산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발견한 뒤 지역에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연대 활동을 합니다. 동행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시스템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영역 자체가 다른 느낌입니다.

### 지역사회에서 동행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피해자를 지원할 때 법적인 장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상황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공익소송뿐 아니라 자문 및 법률연대활동을 펼



치는 동행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에요. 이전에 수도권에 큰 로펌과 일할 때는 변호사가 '종이를 써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면,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역에서 연대하며, 곁에서 함께 해주는 존재로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18개 정도 있는데, 규모가 큰 곳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합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변호사가 없어서 수도권에 있는 공익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큰 로펌이나 재단을 찾아갑니다. 광주·전남은 동행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활동가와 함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입국사무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변론까지 직접 해주니까요. 가끔씩 다른 지역의 권익옹호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어떻게 동행과 밀접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문의하시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를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볼 보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에 전남의 법률지원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좋아요.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광주·전남 지역의 여러 기관과 동행의 협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곳들을 볼 때 동행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 이기림 활동가가 옆에서 본 이소아 펠로우어 어떤 분인가?

이소아 변호사님은요, 환불 받으러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예요(웃음). 왠지 꼭 환불을 받아내 줄 것 같지 않나요? 경찰서나 도청에 갈 때, 혹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도 함께해주시는 덕분에 저와 같은 피해지원 활동가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분이 계속 함께해줄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이소아 변호사님은 '회복탄력성'이 좋으세요. 보통 인권피해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입장에 이입이 되고 부정적인 장면에 장시간 노출되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이 동반되는데, 이소아 변호사님은 그런 감정조차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분이세요. 완전히 가라앉지 않기에 오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소아 펠로우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이소아 변호사는 다시함께상담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광주로 내려가 동행을 만드셨잖아요. 저는 법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소아 변호사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실 때 자연스럽게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동행을 설립하신 뒤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에,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동행은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동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업적인 공익활동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겨났습니다. 2004년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시작된 이후로 공익전담변호사가 많이 늘긴 했지만 대부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에서 동행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의 변호사는 거의 한 명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공익변호사는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익 법률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동행이 지닌 의미가 무척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동행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마음으로 지지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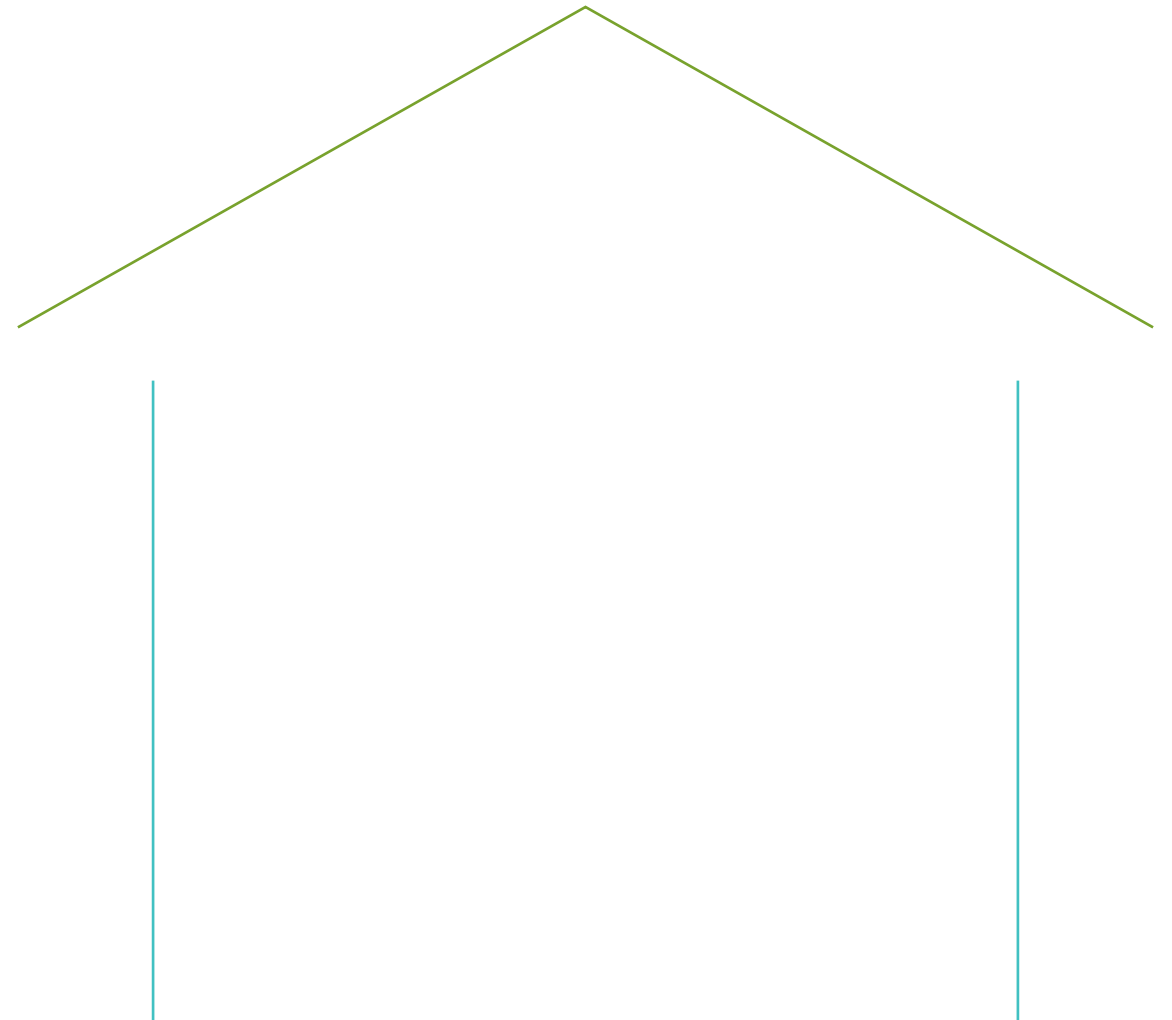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이소아 펠로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소아 변호사를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 자체로 감동이죠. 지방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변호사도 많이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풀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행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꾸러 나가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모습에 감탄해요. 불굴의 의지,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저 역시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 부채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웃음). 여러모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존재랄까요. 무엇이 되었든 같이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학교에 몸담고 있다보니 학생들과 함께 결합하는 것으로나마 손을 보태려고 해요.

**지역에 동행과 같은 비영리 공익법률단체가 추가적으로 생기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하기엔 한계가 존재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저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조력할 수 있는 건 동행이 근거지이자 중심축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중심 역할을 해주는 공익법률단체가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 하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에 동행과 같은 단체가 생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재원이 있어야 하지요. 또 일을 하기 위해선 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등의 자원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생긴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움직임들이 더 살아날텐데요. 공익활동을 결심한 개인이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들이 결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지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다양한 지원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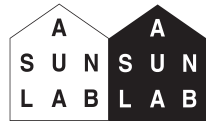
## 현승헌 펠로우 선랩건축사사무소



건축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지역을 살리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집단으로서 지역재생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건축을 전공한 저는 학창시절부터 건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농촌의 노인 분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 및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에 10여 년 정도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건축 작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청년 시절 신림동 고시촌 근처와 대학동 근방에서 하숙과 고시원 생활을 했던 경험을 더해 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 모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2013년 선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실천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선랩(SUNLAB)은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건축가 집단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노후 주거환경 문제와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역 자원 재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들이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고시원 또는 원룸 등의 주거형태가 아닌 새로운 대안 모델을 지향하는 '쉐어어스'라는 공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쉐어어스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청년 1인가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유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구성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개요

**기관명** 선랩건축사사무소

### 소셜미션

지역의 노후공간자원을 활용한 지역거점형 사회 주거모델 개발

**설립연도** 2013년

### 홈페이지

선랩건축사사무소 sunlabarchitects.com  
쉐어어스 share-us.kr

### 기여하는 SDGs



**Goal.11**  
불평등 완화-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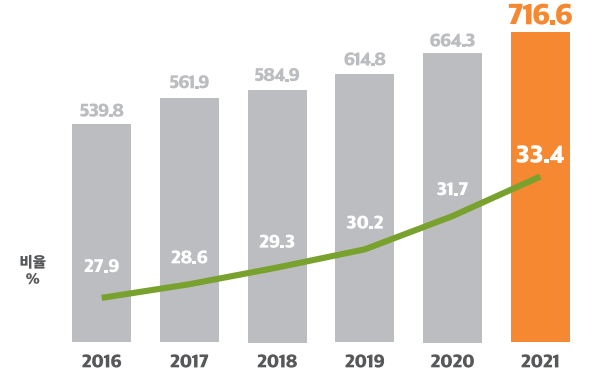
## 사회문제

핵심이해관계자 청년 1인가구

### 1. 1인가구의 가파른 증가 추세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29세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연도별 1인 가구 수 단위:만 가구



자료 | 통계청

- 청년 1인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보다 짧고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37.7%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
- 청년 1인가구의 66.8%는 매달 지출하는 대출 이자, 원금 상환, 월세 등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청년 1인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30대보다 크게 나타남\*\*\*
- 주거비용에 대한 현실적 한계로 원룸이나 고시원을 찾지만 단칸방 형태의 협소한 주거공간은 보안, 안전, 수납, 여가활동 등 공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2. 신림동 고시촌 공실을 급증 및 공동화 현상 진행

-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신림동 고시촌 공실률 급증 및 공동화(空洞化, 도시 중심부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여 텅 비는 현상) 현상 진행 이후 고시원을 원룸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청년 1인가구가 이 공간을 차지함
- 2020년 관악구의 1인가구는 중구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으며\*\*\*\*, 관악구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 1인가구 비중이 큰 이유는 서울시 안에 비교적 집값이 저렴하면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기 쉬운 공간적 이점이 있기 때문

### 3. 불안정한 청년 1인가구에게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지역 커뮤니티의 부재

-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 1인가구는 공동체 및 가족의 해체와 소통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외로움 증가, 영양 불균형 등 여러 문제와 직면
- 청년 1인가구의 58.9%는 외롭다고 인식하며, 13.1%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인식함\*\*\*\*\*
- 질은 베드타운(Bed town, 대도시로의 통근자들에게 잠만 자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려진 이름) 성향, 높은 범죄율 등이 지역사회 안전망 파괴를 초래함
- 커뮤니티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역 거점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분리되거나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

\*2016년 27.9%(539만 8,000가구)에서 2021년 33.4%(716만 6,000가구)로 꾸준히 증가,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9세 이하 19.8% (출처: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 출처: 서울특별시, 2021. 「20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출처: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 관악구 12만 9,233 가구, 중구 2만 2,812 가구(출처: 경인지방통계청, 2022.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 - 지난 10년간 1인 가구 특성 변화 -」, 보도자료)

\*\*\*\*\* 출처: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 솔루션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건축가 집단으로서 노후 도심지의 지역재생을 위해 장소성에 기반하여 공간자원과 지역 수요를 연결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는 도시건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1인가구 및 노후주거환경 문제와 사회 소외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의 자원 순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건축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기존의 지역 자원 재순환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사회를 잇는 네트워크 연계 공간을 만들고, 건축, 장소, 공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풀 어갈 예정입니다.



## 1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안적인 주거 공간 제공

### 3년간의 변화

#### 시세 대비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주변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사회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

- 운영지점 확장 (지역 4개소 => 2지역 5개소)
- 거주인원 수 200% 증가 (누적 500명 => 누적 1,030명)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유닛 제공을 통해 자신이 살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방이 집이 되어버린 1인가구에게 보안, 안전, 여가활용 등 생활서비스 니즈 충족 가능한 1인 주거 모델 제시



※ 수치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

#### 1인가구 거주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쉐어어스에서 나카도 지금 입주자들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돈독해요. 주말이면 같이 한강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도림천에서 배드민턴이나 러닝을 하기도 해요. 쉐어어스 거점에는 ‘나눔존’이 있어요. 각자 필요 없거나 나누고 싶은 물건, 음식 등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혼자 살면 엄두도 못내는 수박과 계란도 나누어 먹으면 문제 없어요! 얼마 전부터는 ‘따뜻한 사회주택기금’에서 임대료 40%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알바를 줄이고 공부와 여가 시간을 더 가지게 됐어요.”

쉐어어스 거주자 경험담 중



## 2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및 지역거점형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3년간의 변화

####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브랜딩 추진

쉐어어스 지점 내 공유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연계 공간으로 확장

- 공간 사용 인원 312% 증가 (누적 160명 => 누적 약 5,000명)



입주자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지역 협업 단기 프로그램 약 20회 내외 추진

- 커뮤니티 사업 누적 50회 => 71회
- 철보공예, 북바인딩, 우드카빙 등 원데이 클래스 운영
- 화장품 만들기, 독서 클래스 및 뮤지컬, 힙합 등 음악 클래스 운영



무료 또는 소정의 이용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거점 공유공간

- 쉐어어스 신림 **신림다락**  
라운지, 카페, 공유주방, 미팅공간 등 커뮤니티 목적에 맞게 7가지의 공간 이용 가능
- 쉐어어스 청광 **호암로 스튜디오**  
청년 크리에이터를 위한 Co-Living&Making 스튜디오로 창작활동 및 클래스 운영 공간 제공
- 쉐어어스 거성 **신림로 루프탑**  
바비큐파티, 동아리활동, 가드닝 등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
- 쉐어어스 에벤에셀 **서림길 라운지**  
응접실, 회의실, 작업실 등 지역 청년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건축

- 일반적인 용역 형태와 달리 지역 주민 및 단체 등과 협업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공간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축과정 유도
- 기존의 공간 자원을 활용해 주변지역 1인 거주공간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 형성

공유주택의 운영 모델로서 매뉴얼 개발 및 관리 시스템 세팅

- 실질적인 공간 재생방안 제안, 기획, 설계 및 실행, 운영까지 종합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
- 선례이 만든 공유주택의 공간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 법령 제안 및 법적 가이드라인과 적용 기준에 대한 연구 진행

#### 지역 커뮤니티 형성으로 청년 1인가구의 고립감 감소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저는 제가 건강하고 제가 행복한 일과 자기계발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삶을 점검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회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제 인생에 중요하고 소중한 밥먹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식구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회주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삶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사회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첫 자취를 결정하게 되면서 혼자서 삶을 꾸려가야한다는 것에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고, 치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의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었던 것 같아요. 쉐어어스에서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한층 마음도 편해지고, 집으로 향하는 걸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 가운데서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제 공간이 만족스럽고, 오늘도 특별합니다!”

쉐어어스 거주자 경험담 중



# 현승헌 펠로우,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터뷰 ① 현승헌 펠로우

뷰티풀펠로우로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선렙이 걸어 온 길을 돌아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요?

기존 고시원이 지닌 물리적 공간에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신림동 고시촌에는 학생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공실도 늘고 근처 상권도 죽어버렸죠. 1인가구 주거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기존 고시원은 보안, 안전, 수납, 여가활용 등 생활 서비스 니즈 충족이 어렵기도 했고, 1인가구 밀집구역이라 지역 공동체 문화 부재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악한 고시원을 임대하여 공유공간을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별공간과 공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거죠.

고시원은 운영자가 갖는 공간 수익 모델의 관점과 부담 가능한 임시 거처를 찾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탄생했어요. 때문에 지불 가능한 비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 공간과 1인가구가 생활하기 위한 충분한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존 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았어요. 이를 위해 기존 공간 구조에서 공유주택 모델에 지역적인 확장성을 더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들어온 공유주택의 공간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랐고 그 기준을 만들고자 법적 가이드라인과 최소 기준을 만드는 연구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여러 연구기관도 고시원의 주거복지 및 환경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선렙도 자본 구조 속의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 빈틈을 파고드는 역할을 계속하려 합니다.

### 선렙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변화를 체감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던 상황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걸 볼 때입니다. 전부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장 의미미한 프로젝트는 서울시 리모델링 사회주택 제도입니다. 최초의 웨어어스 프로젝트가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고 이 사업 모델의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주택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또한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구 검토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기 좋은 하숙집과 관련해 만들어진 법령에서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는데 이처럼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시도한 작업들이 샘플링 될 때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렙이 기획,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례가 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고시원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집이었지만 웨어어스는 누구나 원하는 집이자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는 부분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고시원처럼 열악한 생활공간에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개선된 생활환경에서 개인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공동 공간으로 나오면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 지난 3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외부적으로 크게 확장하지 못했어도 내부적으로는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힘든 시기를 잘 버티면서도 조직 문화를 개편하고 신규 사업 기반을 닦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활동가와 사업가 사이에 있는 듯한 저의 역할을 고민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활동가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활동가적인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성격으로 바뀌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활동가적인 성향이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가능여부로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하도록 실천하고, 목표로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작업 자체로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했고 앞으로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접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목표에 몰두해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었는데, 성장한거죠. 실패를 경험하면서 유연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고요. '꼭 이렇게 가야한다고 고집하기보다는, 해당 방식이 안되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실천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속도는 느리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마음이 커요. 운영하는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주거 형태가 아니더라도 공간과 장소가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건축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제안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지역에서 다양한 공간을 기획하고, 공공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건축 문화를 개선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공간 장소성을 담보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지역 활동가 역할도 하고 싶어요. 공간 운영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수익의 가치를 사용자와 나누는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을 건축과 공간, 장소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 인터뷰 ② 선랩건축사사무소 | 조재혁 소장

### 선랩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랩을 처음 알게 된 건 2015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건축 실무를 하다가 일본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고시원이라는 공간에 관심이 있어 건축으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젊은 건축가가 고시원을 공유주택이라는 주거 모델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만나봐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연이 닿았습니다. 그간 제가 진행해온 연구도 고시원의 결이 있다보니 매년 서로 리뷰를 해왔는데, 이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박사논문까지 완성하게 됐어요. 공부를 마치고 난 뒤 다음 행보를 고민하던 중에 이왕이면 제가 연구한 분야에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귀국 후 선랩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 선랩만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사회주택이라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적 관점의 주택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택은 단순히 사회적인 주택을 만든다기 보다는 새로운 주거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주택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게 선랩만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단순히 같이 쓴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셰어어스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도가 멋진거죠. 실질적인 공간 계획과 운영방식도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랩 이외에 이런 도전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직 정답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승헌 펠로우는 어떤 리더인가요?

어떤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강한 분이예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는, 몸소 실천하는 리더입니다. 또, 업무를 진행할 때 혼자서 결정하고 진행하기보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리더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할지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본인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제각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 기존에 고시원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달리 새로운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하고 계신데, 앞으로 선랩이 나아갈 모습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주택이라는 것이 꼭 고립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방과 거실, 욕실 등이 세트에 갖춰져야만 완전한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셰어어스의 운영방식에서 흥미로운 건 공부방, 응접실, 부엌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도 입주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입주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선랩이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새로운 주거모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랩은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선한 기운이 모여있다고 느낍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가려 하고요. 물론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경계를 허무는 선랩의 새로운 시도 속에서 저는 당연시되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검증하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③ 선랩건축사사무소 | 양우경 팀장

### 선랩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 중에 우연히 사회주택 공모전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서 참가했는데 운 좋게 수상했습니다. 다만, 사회주택이 막 시작하던 단계여서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렇지만 사회주택이 제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추구하고자 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상식에서 선랩건축사사무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현승헌 대표님이 공모전 심사를 하던 분이였죠. 제가 생각했던 모델을 직접 운영하고, 설계도 같이 했다는 점이 제게는 메리트도 다가왔어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달까요. 선랩에서 채용공고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사실 저는 대표님을 무척 보냈습니다. 여름, 겨울에 한 번씩 채용한다고 했는데 왜 공고가 안 나오나면서요(웃음). 자본주의적 논리가 만연한 구조 속에서 일하기보다는 가치를 분명하게 추구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선랩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 약 5년간 선랩에 몸담아오면서 경험한 선랩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들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건축사 시험이라든지, 기술자로서의 성장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감들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연결되어 설계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더딘 변화일지라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대표님도 스스로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는 편이예요. 설계를 하다보면 주관적인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안을 두고 대표님과 제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표님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 해보라고 말씀해주세요. 이런 조율을 통해 막힐 때에도 섞어내는 작업을 통해 절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펼치기 쉽지 않은데, 선랩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더 편하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현승헌 펠로우는 어떤 리더인가요?

'선랩이 곧 현승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대표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와 5년 동안 옆에서 봐온 모습이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 본인의 목표나 원칙이 또렷하다보니 따라가면서 저처럼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끌어 가는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고 늘 열려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비롯해 작은 회의를 할 때도 대표님이 혼자 결정하고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책임은 본인이 지되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려 하죠. 저희는 회의가 정말 많은데 선랩만의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앞으로 선랩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엔지니어로서만이 아니라 운영방식과 믹스될 때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설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제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또 셰어어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고시원 모델이었다면, 에어비앤비나 공유 숙박시설의 운영, 설계, 인테리어 등을 녹여낸 브랜딩을 구현해내고 싶어요. 사실 해남 프로젝트나 현재 선랩이 설계하고 있는 것들도 설계업에서는 새로운 방식이긴 하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이후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해서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선랩의 메리트니까요.

# 뷰티풀펠로우 1~12기 소개



## 1기

강성태  
공신닷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씁니다.

류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진재선  
이르미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반의 농산물 유통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어갑니다.

## 2기

박정이  
(전)오방놀이터



행복한 놀이와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의 친한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박정화  
indie cf



소규모 사업자들로 하여금 광고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만듭니다.

유덕수  
(전)열정대학(PassionEdu)



재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대들이 천직을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유정호  
소셜코어



고학력 장애인의 발전적인 고용을 위해 특별한 출판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3기

박형일  
교육농연구소



도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로 영역의 확장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 4기

구민근  
페이스페이스



도시의 유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재활용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환경과 마음을 생각하는 새로운 웨딩 상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문아영  
피스모모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중심가치 위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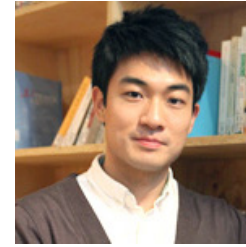
안시준  
한국갭이어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5기

박찬재  
두손컴퍼니



제조와 물류 서비스를 통해 홀리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정지연  
에이컴퍼니



미술작가의 창작 환경개선을 위해 미술작가와 관객을 연결하고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꾀합니다.

## 6기

함의영  
피치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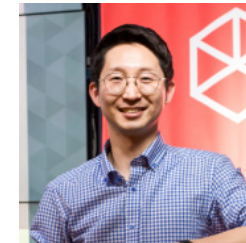
읽을거리가 부족한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활연령과 인지능력에 맞는 문학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유동주  
케이오에이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주민들의 지속적 자립을 위해 무역을 창출하고 제품에 브랜딩과 마케팅을 더합니다.

황진솔  
더 브릿지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인 기부금을 개발도상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현지 비즈니스의 자립도를 높입니다.

이영희  
토닥토닥협동조합



문턱을 낮추어 지역민들이 마음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친근한 심리상담 카페를 운영합니다.

## 7기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관객(시민)들의 자치적이고 대안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문화 다양성 보호 및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킵니다.

이경황

오파테크



시장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Tap-tilo)을 제공하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노순호

동구밭



도시 텃밭 가꾸기와 천연비누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갈 곳'과 '일할 곳'을 만듭니다.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드



공정무역 상품 유통 및 교육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주체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구현합니다.

박종범

농사펀드



농부에게 투자하고 보다 나은 먹거리로 돌려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농부는 빚 걱정 없이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 8기

김민영

방앗간컴퍼니



생산에 의한 소비를 지향하며 지역생산자들과는 정당한 가격에 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건강하고 믿음만한 식문화를 제공합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 펀딩과 발전소 및 커뮤니티 관리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희정

짜깍악어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검증, 교육된 돌봄 교사를 연결하는 온디맨드 매칭 플랫폼입니다.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장애인 직접고용 컨설팅과 사업장 위탁운영을 통해 기업의 부담금을 줄이고,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을 늘립니다.

박기범

비플러스



시민 참여형 임팩트투자 플랫폼으로, 사회혁신기업 등 공익 프로젝트의 필요 자금을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대출해주는 P2P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9기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실내의 벽면녹화 사업을 통해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승현  
선랩건축사사무소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고시촌의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유주택과 지역 커뮤니티형 사회주택을 지으며, 도시건축 재생 솔루션을 고민합니다.

안성규  
드림스폰



대학생에게 맞춤형 장학금을 제공해주는 장학금 플랫폼 드림스폰을 운영하며 기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교육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장애인, 빈곤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공익인권 법률·소송을 지원하고 지역 공익변호사를 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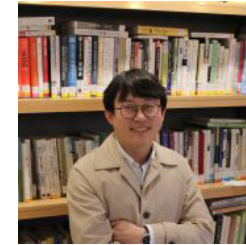
## 10기

권기호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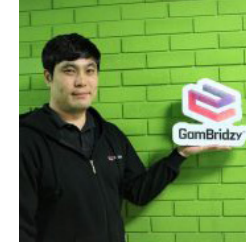
농산어촌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 청소년·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함께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할 일(to do)과 먹고 살 수 있는 할 일(to work)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박원진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소통 장벽의 경계를 허물고, 문자통역사들의 재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민석  
하트버스



사회적·문화적 메시지가 담긴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혜린  
이노마드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 및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문병무  
쿠미



중증운동장애 아동의 운동발달을 돕기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계효석  
엘에이알(lar)



가죽, 플라스틱 재활용 원사, 생분해 아이스팩 등 친환경 소재를 발굴 및 개발하여 친환경 신발과 가방 등 패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스페셜아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 전시 개최, 기업의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고용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송경호  
더 피커



제로웨이스트 매장 운영을 중심으로 건강한 소비문화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김현진  
코리아넷유어더어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하고 일자리를 개발합니다.

노함찬  
윤희 주식회사



개인이 의류를 편리하게 재판매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도하게 생산하고 버려지는 의류산업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합니다.

배태관  
오이스터에이블



AIoT기술로 회수 디바이스를 제공해 순환자원을 모으고 시민에게 참여 보상 및 보증금 반환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환경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이승우  
119레오



생명을 구한 소방 안전장비를 가방 및 패션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고, 소방관 권리보장에 동참합니다.

이태호  
윙윙



라이프스타일 속과 코워킹 스페이스, 사회주택 공간을 운영합니다. 마을의 자원을 연결하고 홍보하는 미디어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며 청년과 마을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지향합니다.

이현준  
세븐포인트원



비대면 AI기반 치매 조기진단 솔루션 및 VR기반 인지개선 솔루션 개발을 통해, 치매 문제 완화를 위한 전주기 케어 솔루션을 보급합니다.

백정연  
소소한소통



쉬운 글과 보조적 이미지를 더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들어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쉬운 정보'가 권리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합니다.

윤지현  
소리를보는통로



인공지능을 통해 소리를 문자로 변환한 실시간 자막이나 녹음파일을 정확한 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돕습니다.

이채진  
코끼리공장



전국 아동복지기관의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수거 후 수리하고 소독하여 취약 아동에게 전달하며 나눔할 수 없는 장난감은 분해 후 재생소재로 제조 생산합니다.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보 기준이므로, 현재의 소셜미션 및 사업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주소** 서울 중구 소공로 34 아름다운가게  
**문의** 사회적기업센터 02-2115-7044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http://www.beautifulstore.org)  
**디자인** 청년협동조합 몽땅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의는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